

“전남 민생경제 살린다”…도, 추경 13조809억 조기 편성

2034년까지 벤처기업 3천개 육성 등 3·3·3 프로젝트 추진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지원…소상공인·인구 감소 등 대응

전남도가 오는 2034년까지 도내 벤처기업 3000개,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300개, 사장기업 30개 육성을 목표로하는 ‘3·3·3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대내외적 리스크에 직면한 도내 주요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대미(對美)수출 기업 지원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은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한국살이 지원 및 정착을 위한 정책 등도 총출하게 챙긴 예산을 편성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13조 8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골목

상권 붕괴로 ‘빨간불’이 들어온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지역 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에 중점을 뒀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12조 5436억 원보다 5373억 원(4.3%) 증가한 규모로, 통상 5·6월에 제출되던 것보다 한달여 빠른 편성이다. 국가적 비상상황에 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 66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대표적으로 ‘3·3·3 프로젝트’에 45억 4000만원을 확대, 신규 편성했다. ‘3·3·3 프로젝트’는 청년 창업자 150명에게 월 100만 원

의 창업기술 개발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10억원), 도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22억원) 등을 포함한다.

도내 주역산업에 대한 지원안도 반영됐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과 철강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7억원(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여수 석유화학 고용안정 지원사업, 대미 수출 피해기업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 도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충수수료 지원사업’을 당초 3억원에서 2억원을 추가 반영했고, 도내 ‘착한가격업소공공요금 지원사업’에 3000만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에 1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인기위가 극복 대응분야에는 448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신축아파트를 월 1만원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에 9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하고,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사업’ (75억원)을 확대했다.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미 610억원이 편성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는 75억원(당초 61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글로벌대학 집중육성 지원사업’에도 1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손자를 직접 돌보는 주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2억원)을 신규 반영한 것도 눈에 띄며, ‘어린이집 숲체험 사업’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확대하도록 반영 (1억5000만원)했다.

이밖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등 지역 소멸위기 돌파를 위한 사업들을 여럿 담았다.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도 추경을 통해 챙겼다.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4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광역센터 운영’ (1억원), ‘전남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2억원) 등도 반영을 반영했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해 말 1185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추경도 민생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시기를 앞당긴 만큼 온힘을 기울여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평군 문예회관 건립 ‘제동’…사업 추진 난항

행안위 투자심사 ‘재검토’ 판정

하순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도

도 11개 사업 중 7개 사업 통과

함평군이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하순군이 계획했던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도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남도와 9개 시·군이 올린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추진 과정

에 대한 재검토 판단을 받았고 1개 사업은 반려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300억(시·군 200억) 이상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라는 점에서 제 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절차다.

전남도도 시·군이 행안부 투자심사에 올린 11개 사업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뒤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된 사업은 ▲사도·남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여수·총사업비 360억) ▲팹타이드 첨단신약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화순·440억)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해남·311억)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영암·367억) ▲오룡북합문화센터 건립(무안·255억)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설치사업(진도·293억) ▲목

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목포·436억) 등 7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행안부 심사 통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연장·전시관·청년문화센터 등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는 함평군 계획은 인근 지자체 예술회관 운영수지,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 구체적 수요를 바탕으로 시설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라는 판단을 받으면서 적기 추진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고흥이 추진중인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구축사업도 시험공간·장비구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기관별 자원, 역할 분담, 성과 관리 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에 따라 반려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립도서관 “독서 문화 확산시킨다”

‘작가와와의 만남’·문학강좌·미술놀이 등 프로그램 다채

전남도립도서관이 지역민들의 발길을 붙잡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립도서관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남도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립도서관은 올해 목포시립도서관, 여수시립이순신도서관, 순천시립신대도서관, 구례군매천도서관, 강진군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서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 창작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학강좌’를 운영한다.

또 목포, 여수, 순천, 구례, 무안, 신안 내 작은도서관 15개관을 대상으로 독서 전문 강사가 책과 연계한 미술놀이, 독서토론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강진, 해남, 무안, 영광, 완도 내 사회복지시설(10개소)을 찾아가 독서 테라피 등 ‘찾아가는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도립도서관은 또 ‘2025 전남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작품 저자가 공공도서관, 학교, 지역서점에서 도민과 책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소통하는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도 1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어린이 분야 김다노(최악의 죄에) 작가는 목포를 시작으로 곡성, 강진, 영암 등 전남의 어린이들과 10여 차례 만남을 갖고 문학 분야 정성태(여기는 괜찮아요) 작가는 오는 17일부터 완도, 장흥, 곡성, 영광을, 청소년 분야 추정경(열다섯에 고퍼라니) 작가는 19일부터 구례, 여수, 도립도서관을 찾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미래형’ 양식산업 육성에 572억 투입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 구축

수산재해 대응 등 30개 사업

전남도가 ‘미래형’ 양식산업 육성에 나선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 구축과 수산재해 피해 대응 및 질병 예방, 유망 양식품종 집중 육성 등 30개 사업에 572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 구축 19개 사업에 20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 종자생산시설 개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 등 대규모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를 확대 조성한다.

또 수산재해 피해 대응과 질병 예방을 위해 303억원을 투입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를 전국 최대



고흥 도화면의 김양식장.

수준인 90%까지 지원하고, 액화산소 공급기, 차량막 등 대응장비를 보급한다. 특히 양식 현장에서 어업인 수요가 많은 백신·면역 증강제를 확대 보급해 양식생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육성을 위해 63억원(5개

사업)을 지원한다. 새우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유용미생물을 새우양식장에 공급하고, 유류수면을 활용한 유망 품종 양식어장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11일까지 순천·여수 등서

38개 종목서 316명 경쟁

전남을 대표하는 숙련기술인의 축제, ‘2025년 전남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11일까지 5일 간 순천·여수·나주·해남·담양 등 5개 시·군 10개 경기장에서 316명(38개 종목)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다.

직종별 입상자(금·은·동)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정한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고, 오는 9월 20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 대회 융접 분야 기술 경연 장면. <전남도 제공>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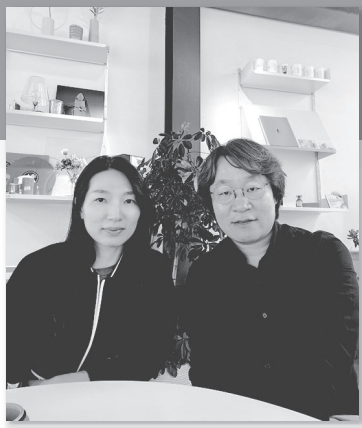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